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여론속의 여輿론論

2018. 07



## 목 차

# CONTENTS

---

|                |    |
|----------------|----|
| 주요 조사결과 .....  | 4  |
| 1. 현안 조사 ..... | 7  |
| 2. 국정 지표 ..... | 13 |
| 3. 조사 개요 ..... | 22 |

## 2018년 7월 주요 조사결과

## 01

## 현안조사 :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판결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

- 고대 로마 군인 막시밀리아누스의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 이래로 오늘날의 헌법재판소 병역법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에 이르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그간의 진통은 작지만 결코 짧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분단국가의 특성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전 세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 이처럼 높은 관심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재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응답자의 82%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알고 있는 비율보다는 다소 낮지만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불법임을 알고 있는 비율도 75%로 나타났습니다.
- 하지만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76%), 대부분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 그냥 병역거부 또는 개인적 병역거부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는 대체방안 마련에 대한 시선도 주요하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에 대해 신념보다는 힘든 군생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고(75%), 국방의 의무와 같은 국민 의무사항에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4%, 반대 56%로 반대가 다소 높았습니다.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방안 마련을 주문한 만큼, 앞으로의 대체복무 방향에 대해서는 일반 사병 군복무 기간 대비 더 길어야 한다는 입장(1.5배 32%, 2배 28%, 2배 초과 24%)이 다수를 차지했고, 국방부가 언급한 대략적인 오용 및 악용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55%)이 다소 높았습니다.

- 본 주제는 국방 안전과 연결된 만큼 실제 국방의 의무 수행 대상인 남성에서 주제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높았으며, 이념적 성향 중 보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강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 외에도 다방면에서 국내외 정세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대신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식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얼핏 작은 사안으로 치부될 수 있으나 소수자 인정, 개인 인권 등과 같은 국가의 기본 가치와 깊게 연결된 만큼,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정지표 :

### 대통령 국정운영과 리더십평가, 정책 평가, 경제/안보인식

-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8%로 전월(78%) 대비 10%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1월부터 전반적으로 이어오던 상승세가 꺾인 형국입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컸습니다.
- 리더십 평가에서도 6가지 항목(원칙과 소신, 소통, 민생 안정, 위기상황 대처, 통합 노력, 공직 인사) 모두 긍정적 평가가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 부문은 지난 4월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주요 10개 정책 중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을 잘한 정책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반면 '일자리 및 고용 정책'과 '주거 및 부동산 정책'을 가장 못한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 경제인식지수는 -39로 지난 달(-27) 대비 1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직업별로는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올해 5월 이후 경제인식지수가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 국가안보 지수는 +28로 지난 달(+36) 대비 8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여론속의

# 여輿論論

CHAPTER

01

현안조사

양심적 병역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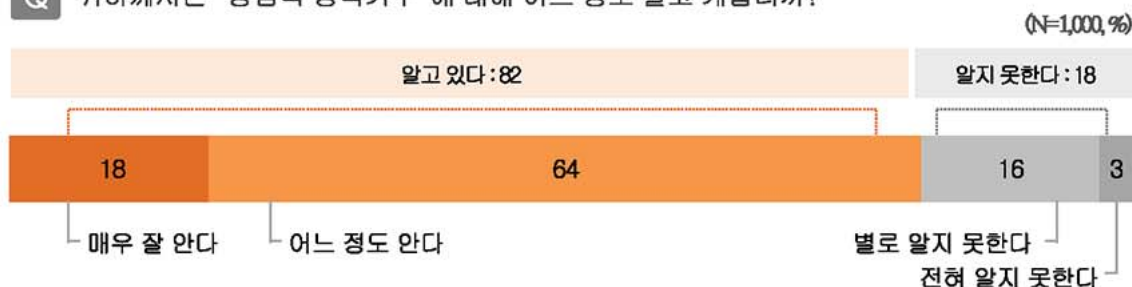
## 01

1. 양심적 병역거부,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한  
여론의 인지는 높은 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2%는 “알고 있다”(매우 잘 안다 18% + 어느 정도 안다 64%)고 답했다. 반면 “알지 못한다”는 18%(별로 알지 못한다 16% + 전혀 알지 못한다 3%)에 그쳐, 본 주제에 대한 여론의 인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고 있다”는 비율은 성별로 남성(87%), 학력별로 대학교 재학 이상(87%), 또한 월평균 소득이 높은 층 (85~89%), 이념 성향별로 진보 성향(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Q 귀하께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에 비해,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의  
불법 인지 여부는  
다소 낮아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합법(처벌 받지 않음)인가, 불법(처벌 대상이 됨)인가에 대한 인지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불법이다”라는 응답이 75%로 주제 자체의 인지도 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잘 모르겠다”는 10%를 기록했고, “합법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도 15%로 낮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지하면서 불법 여부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이해도 높음으로 분류하면, 10명 중 6명은 본 주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Q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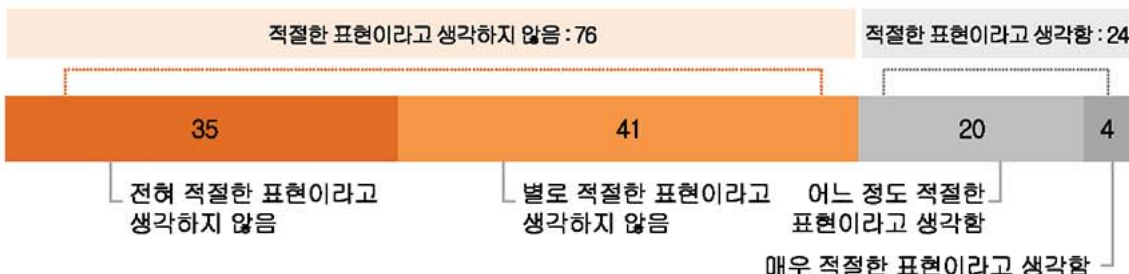
## 2.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공감하시나요?

“양심적 병역거부”  
다수가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당초 조사 설계 시, 고려했던 가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76%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 중에서도 전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응답이 35%에 달했다. 특히, 연령별로 60대 이상(83%), 이념성향에서 보수 성향(8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Q 귀하는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동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국민들이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 표현

조사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심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적절성 또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심”이라는 긍정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이를 양심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일반 입대자는 양심을 포기하거나 비양심적이라서 군에 입대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 등이 그 증거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 용어로는 “종교적 병역거부”(27%), “그냥 병역거부/기피/회피”(26%), “개인적 병역거부”(13%) 등의 응답이 주를 차지했다. 대체용어 제시 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도 10%를 차지했다.

(N=750, %)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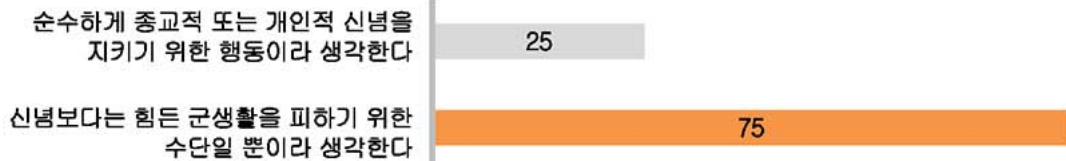
## 3.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방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무려 75%가 신념보다는 힘든 군생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그 동안 언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나타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고백이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정적인 시선이 높은 상태이다.

Q 귀하는 본인의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N=1,000, %)

대체방안 마련을 두고  
대립하는 찬반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처벌을 받는 대신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는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대체방안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56%)이 다소 높았다.

특히, 반대 의견의 비율은 연령별로 60세 이상(70%), 학력별로 고졸 이하(62%), 이념 성향별로 보수(68%) 및 중도(61%), 주제 이해도별로 이해도 낮음(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Q 귀하는 '병역의 의무'와 같은 국민의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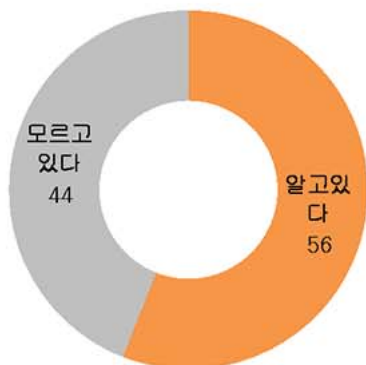
## 01

## 4.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판결에 대한 국민 인지 여부와 인식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병역법 판결  
인지 여부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과반 이상(56%)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알고 있다는 비율은 성별로 남성(68%), 연령별로 50대(65%) 및 60세 이상(62%), 종교별로 개신교(61%), 이념 성향별로 진보 성향(6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Q 지난달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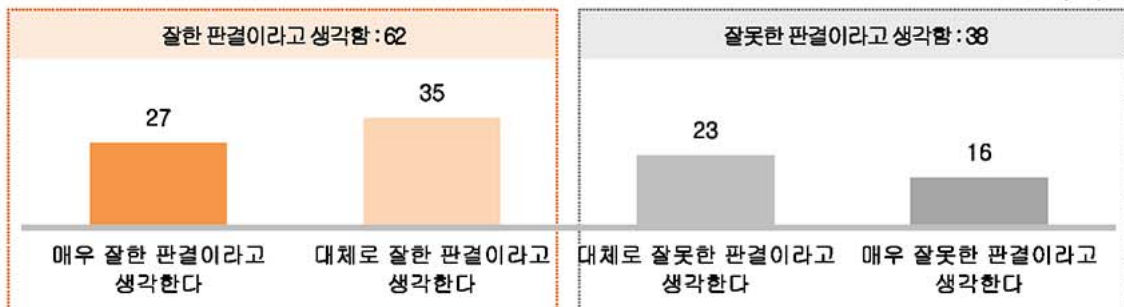


| 구분        | 사례수 (명) | 알고 있다 | 모르고 있다 | 계   |
|-----------|---------|-------|--------|-----|
| 전체        | (1,000) | 56    | 44     | 100 |
| 성별 남성     | (497)   | 68    | 32     | 100 |
| 연령 50대    | (201)   | 65    | 35     | 100 |
| 연령 60세 이상 | (248)   | 62    | 38     | 100 |
| 종교 개신교    | (209)   | 61    | 39     | 100 |
| 이념성향 진보   | (324)   | 61    | 39     | 100 |

병역법 제88조 1항의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판결에 공감대 높아

그렇다면 판결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군 입대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 합헌판결에 대해 잘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닌 만큼 군 입대 거부자를 처벌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Q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이다"라고 결정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 01

5. 대체복무,  
앞으로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대체복무 기간,  
일반 사병 군복무 기간  
대비 길어야 한다는 의견  
다수

만일 대체복무가 (1)원칙적으로 합숙, (2) 사회복지, 의료/보건, 전투경찰, 경비교도 등의 신체적 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근무 등의 유형으로 구성된다면,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83%)는 일반 사병 군복무 기간 대비 길어야 한다고 답했다. 길어야 한다는 응답 중에는 1.5배(32%) 및 2배(28%)의 기간에 대한 응답 외에 일반 사병 군복무 기간 대비 2배를 초과 해야 한다는 응답도 24%를 차지했다.

Q 만약 대체복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대체복무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대체복무의  
오용 및 악용 방지를 위해  
조금 더 보완이 필요

대체복무제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이나 병력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고, 객관적인 종교 관계자들의 확인서나 자술서 등을 판정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응답자 55%는 방지되지 못할 것이라 의견을 보였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대체복무제의 오용 및 악용 방지를 위한 세부방안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증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대체복무 오용 또는 악용 방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담당자 박종경 과장

전화 | 02-3014-0988

e-mail | jkpark@hrc.co.kr

여론 속의

# 여輿論論

CHAPTER



02

국정지표

## 02

## 국정지표

## 1)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지난 달 대비  
10%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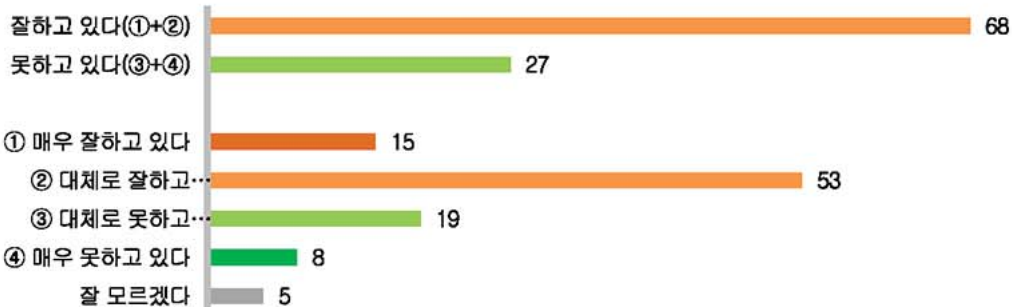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8%는 잘하고 있다고 한 반면, 27%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달 대비 10%포인트(78% → 68%) 하락하였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상승세가 지속되지 못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70%, 30대 72%, 40대 76%, 50대 68%, 60세 이상 55%이며, 60세 이상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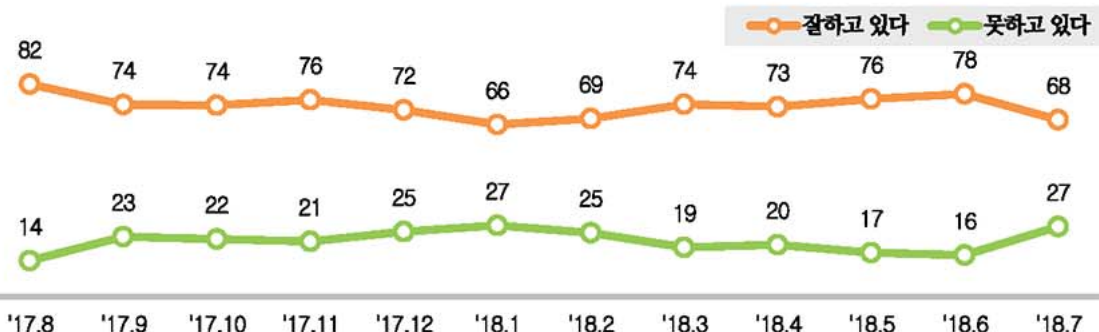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서울 69%, 인천/경기 69%, 대전/세종/충청 67%, 광주/전라 86%, 대구/경북 50%, 부산/울산/경남 62%이며, 지난달 대비 대구/경북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93%, 중도 69%, 보수 36%로 지난달 대비 보수층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잘하고 있다 68%, 못하고 있다 27% (N=1,000, %)



지난달 대비 10%포인트 하락 (N=1,000, %)



##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

지난달 대비 60세 이상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전월 대비 |
|--------|-------|-------|-------|-------|-------|-------|-------|-------|
| 전체     | 66    | 69    | 74    | 73    | 76    | 78    | 68    | -10   |
| 19-29세 | 67    | 74    | 73    | 78    | 81    | 80    | 70    | -10   |
| 30-39세 | 77    | 81    | 81    | 87    | 85    | 85    | 72    | -13   |
| 40-49세 | 78    | 77    | 88    | 82    | 83    | 87    | 76    | -11   |
| 50-59세 | 66    | 71    | 76    | 70    | 80    | 72    | 68    | -4    |
| 60세 이상 | 48    | 47    | 58    | 56    | 59    | 70    | 55    | -15   |

지난달 대비 대구/경북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전월 대비 |
|----------|-------|-------|-------|-------|-------|-------|-------|-------|
| 전체       | 66    | 69    | 74    | 73    | 76    | 78    | 68    | -10   |
| 서울       | 60    | 68    | 74    | 69    | 76    | 78    | 69    | -9    |
| 인천/경기    | 68    | 71    | 76    | 77    | 79    | 79    | 69    | -10   |
| 대전/세종/충청 | 72    | 66    | 73    | 73    | 74    | 74    | 67    | -7    |
| 광주/전라    | 84    | 85    | 90    | 87    | 91    | 91    | 86    | -5    |
| 대구/경북    | 60    | 62    | 59    | 60    | 62    | 69    | 50    | -19   |
| 부산/울산/경남 | 62    | 59    | 71    | 71    | 76    | 77    | 62    | -15   |

지난달 대비 보수층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 %p)

|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전월 대비 |
|----|-------|-------|-------|-------|-------|-------|-------|-------|
| 전체 | 66    | 69    | 74    | 73    | 76    | 78    | 68    | -10   |
| 진보 | 88    | 88    | 93    | 93    | 94    | 95    | 93    | -2    |
| 중도 | 70    | 73    | 74    | 73    | 81    | 76    | 69    | -7    |
| 보수 | 41    | 47    | 51    | 48    | 50    | 59    | 36    | -23   |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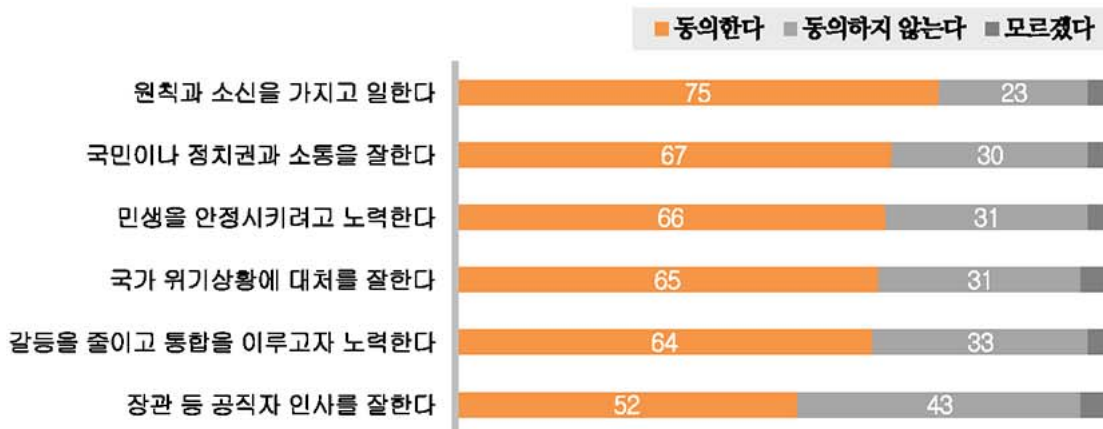
국정지표  
2) 대통령 리더십 평가

민생 안정 부문  
전월 대비 소폭 하락  
4월 이후 하락세 지속

대통령 리더십을 6가지 차원으로 각각 평가하게 한 결과, 원칙과 소신에 대한 긍정평가가 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통(74%), 민생 안정(67%), 위기상황대처(65%), 통합 노력(64%), 공직인사(52%) 순이었다.

리더십 차원별 평가 추이를 보면, 지난달 대비 모든 부문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다. 민생 안정 평가는 4월부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원칙과 소신에 대한 평가 가장 높고, 공직 인사 평가 가장 낮아 (N=1,000, %)



지난달 대비 모든 부문에서 긍정평가 비율 하락 (N=1,000, 동의한다%, %p)

|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전월 대비 |
|-----------------------|-------|-------|-------|-------|-------|-------|-------|-------|
|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       | 72    | 72    | 78    | 74    | 78    | 81    | 75    | -6    |
| 국민이나 정치권과 소통을 잘한다     | 69    | 68    | 72    | 71    | 72    | 74    | 67    | -7    |
|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한다       | 73    | 69    | 71    | 73    | 71    | 69    | 66    | -3    |
|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를 잘한다      | 59    | 62    | 70    | 71    | 73    | 73    | 65    | -8    |
|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 62    | 62    | 66    | 68    | 67    | 68    | 64    | -4    |
| 장관 등 공직자 인사를 잘한다      | 52    | 51    | 57    | 51    | 55    | 59    | 52    | -7    |

## 02

국정지표  
3) 정책 평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대북 정책,  
가장 못한 정책으로  
일자리 고용 정책을  
주로 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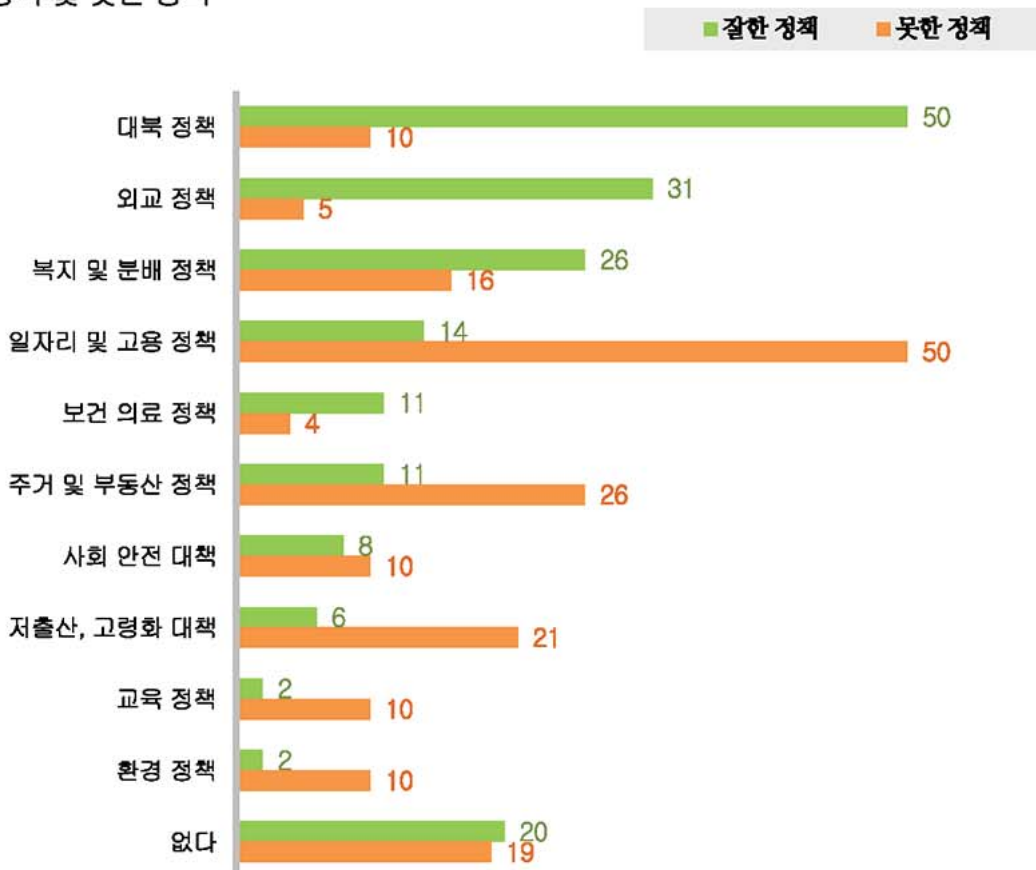
주요 10개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을 두 개씩 선택하게 한 결과,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대북 정책'(5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외교 정책'(31%), '복지 및 분배 정책'(26%), '일자리 및 고용 정책'(14%), '보건 의료 정책'(11%), '주거 및 부동산 정책'(11%), '사회 안전 대책'(8%), '저출산, 고령화 대책'(6%), '교육 정책'(2%), '환경 정책'(2%) 등의 순이었다.

가장 못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및 고용 정책'(5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주거 및 부동산 정책'(26%), '저출산, 고령화 대책'(21%), '복지 및 분배 정책'(16%), '환경 정책'(10%), '교육 정책'(10%), '사회 안전 대책'(10%), '대북 정책'(10%), '외교 정책'(5%), '보건 의료 정책'(4%) 등의 순이었다.

잘한 정책 및 못한 정책

(N=1,000, 1+2순위%)



## 02

국정지표  
4) 국가 경제 인식

## 국가경제 인식지수

-39

지난달 대비

12포인트 하락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하였으며, 이는 미국갤럽의 경제인식 인덱스(Gallup's U.S. Economic Confidence Index)를 참고하였다.

국가 경제 인식 지수는 -39로 지난달(-27) 대비 12포인트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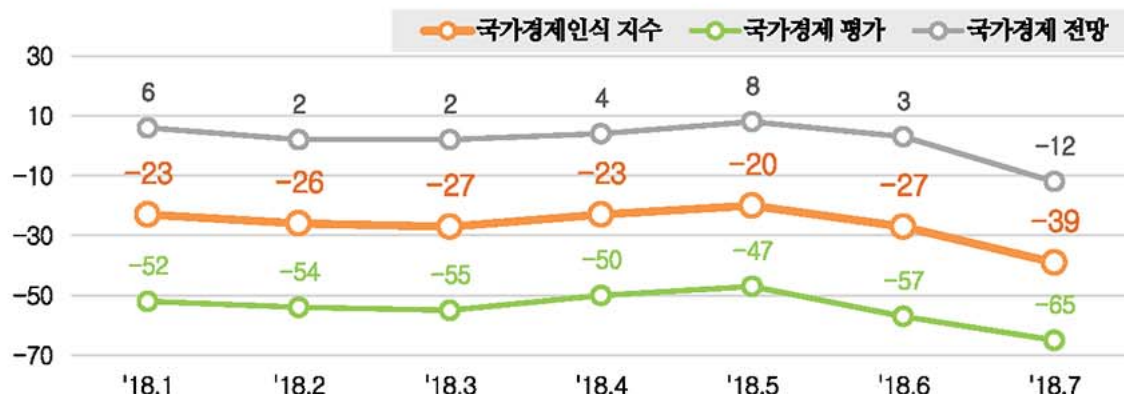
## 경제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 우리나라 경제상황 평가         | 좋다<br>(a)     | 좋지도<br>나쁘지도<br>않다 | 나쁘다<br>(b)    | 모르겠다 | 계    | 좋다-나쁘다<br>(a-b)          |
|----------------------|---------------|-------------------|---------------|------|------|--------------------------|
|                      | 4%            | 26%               | 69%           | 1%   | 100% | -65(A)                   |
| 우리나라 경제상황 전망         | 나아질<br>것이다(c) | 지금과<br>비슷할<br>것이다 | 나빠질<br>것이다(d) | 모르겠다 | 계    | 나아질 것-<br>나빠질 것<br>(c-d) |
|                      | 27%           | 31%               | 39%           | 3%   | 100% | -12(B)                   |
| 국가경제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               |                   |               |      |      | -39                      |

## 국가경제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3포인트 상승

(N=1,000, 포인트)



## 연령대, 거주지역, 직업별 국가 '경제'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40대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전월 대비 |
|--------|-------|-------|-------|-------|-------|-------|-------|-------|
| 전체     | -23   | -26   | -27   | -23   | -20   | -27   | -39   | -12   |
| 19-29세 | -25   | -16   | -20   | -16   | -20   | -27   | -26   | +1    |
| 30-39세 | -12   | -20   | -17   | -8    | -9    | -19   | -33   | -14   |
| 40-49세 | -12   | -13   | -16   | -23   | -7    | -11   | -34   | -23   |
| 50-59세 | -26   | -29   | -30   | -30   | -20   | -36   | -44   | -8    |
| 60세 이상 | -36   | -46   | -45   | -34   | -40   | -40   | -52   | -12   |

지난달 대비 광주/전라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전월 대비 |
|----------|-------|-------|-------|-------|-------|-------|-------|-------|
| 전체       | -23   | -26   | -27   | -23   | -20   | -27   | -39   | -12   |
| 서울       | -25   | -25   | -28   | -28   | -17   | -35   | -35   | 0     |
| 인천/경기    | -25   | -27   | -22   | -20   | -20   | -26   | -39   | -13   |
| 대전/세종/충청 | -22   | -31   | -23   | -22   | -30   | -18   | -35   | -17   |
| 광주/전라    | -4    | -7    | 2     | -1    | +3    | +3    | -15   | -18   |
| 대구/경북    | -32   | -31   | -49   | -38   | -33   | -38   | -50   | -12   |
| 부산/울산/경남 | -22   | -31   | -44   | -27   | -23   | -39   | -54   | -15   |

지난달 대비 생산/기능/노무직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전월 대비 |
|-----------|-------|-------|-------|-------|-------|-------|-------|-------|
| 전체        | -23   | -26   | -27   | -23   | -20   | -27   | -39   | -12   |
| 자영업       | -31   | -35   | -37   | -41   | -37   | -32   | -51   | -19   |
| 판매/영업/서비스 | -24   | -16   | -23   | -21   | -13   | -38   | -32   | +6    |
| 생산/기능/노무  | -13   | -22   | -12   | -22   | -13   | -16   | -39   | -23   |
| 사무/관리/전문  | -19   | -22   | -15   | -6    | -13   | -21   | -38   | -17   |
| 주부        | -32   | -35   | -31   | -29   | -24   | -35   | -45   | -10   |
| 학생        | -10   | -11   | -30   | -26   | -21   | -31   | -34   | -3    |
| 무직/퇴직/기타  | -19   | -27   | -35   | -26   | -20   | -22   | -31   | -9    |

## 02

국정지표  
5) 국가 안보 인식국가안보 인식지수  
+28

지난달 대비

8포인트 하락

경제인식 인덱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을 현재 상황 평가와 이후 전망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뒤, 평가와 전망의 순 긍정 응답비율을 산술평균 하여 지수화(-100과 100사이의 값)했다.

국가 안보 인식 지수는 +28으로 지난달(+36) 대비 8포인트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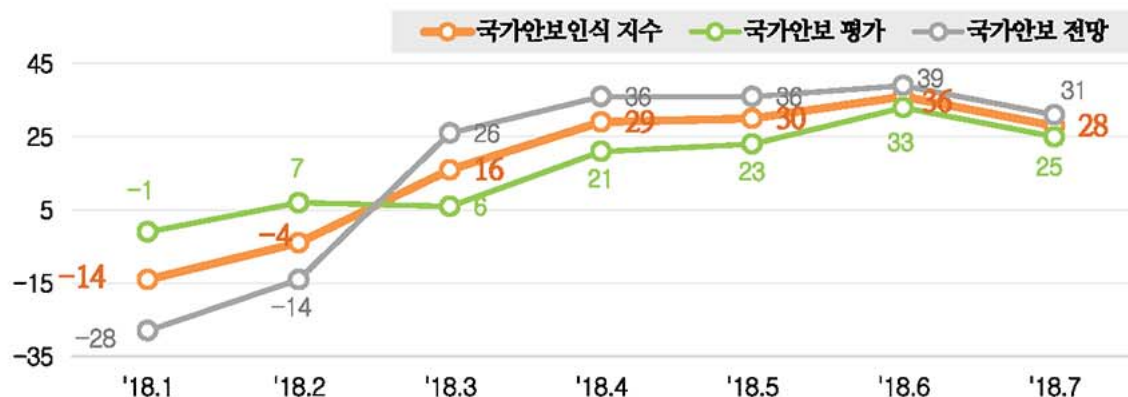
## 안보 인식 지수 산출 방식

(N=1,000)

| 우리나라 안보상황 평가         | 좋다<br>(a)     | 좋지도<br>나쁘지도<br>않다 | 나쁘다<br>(b)    | 모르겠다 | 계    | 좋다-나쁘다<br>(a-b)          |
|----------------------|---------------|-------------------|---------------|------|------|--------------------------|
|                      | 44%           | 35%               | 19%           | 2%   | 100% | +25(A)                   |
| 우리나라 안보상황 전망         | 나아질<br>것이다(c) | 지금과<br>비슷할<br>것이다 | 나빠질<br>것이다(d) | 모르겠다 | 계    | 나아질 것-<br>나빠질 것<br>(c-d) |
|                      | 48%           | 32%               | 17%           | 3%   | 100% | +31(B)                   |
| 국가안보인식(지수): A와 B의 평균 |               |                   |               |      |      | +28                      |

## 국가안보 인식지수 지난달 대비 1포인트 상승

(N=1,000, 포인트)



## 연령대, 거주지역, 이념성향별 국가 '안보' 인식지수 추이

지난달 대비 60세 이상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전월 대비 |
|--------|-------|-------|-------|-------|-------|-------|-------|-------|
| 전체     | -14   | -4    | +16   | +29   | +30   | +36   | +28   | -8    |
| 19-29세 | -8    | +10   | +18   | +35   | +30   | +28   | +36   | +8    |
| 30-39세 | +2    | +9    | +25   | +35   | +38   | +33   | +39   | +6    |
| 40-49세 | +3    | +10   | +36   | +36   | +43   | +58   | +46   | -12   |
| 50-59세 | -18   | -1    | +18   | +29   | +34   | +40   | +26   | -14   |
| 60세 이상 | -42   | -37   | -9    | +15   | +10   | +23   | +1    | -22   |

지난달 대비 부산/울산/경남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전월 대비 |
|----------|-------|-------|-------|-------|-------|-------|-------|-------|
| 전체       | -14   | -4    | +16   | +29   | +30   | +36   | +28   | -8    |
| 서울       | -24   | -10   | +15   | +29   | +31   | +34   | +33   | -1    |
| 인천/경기    | -14   | -3    | +23   | +35   | +31   | +38   | +28   | -10   |
| 대전/세종/충청 | -11   | -13   | +20   | +24   | +25   | +35   | +36   | +1    |
| 광주/전라    | +8    | +24   | +42   | +49   | +60   | +54   | +52   | -2    |
| 대구/경북    | -29   | -5    | -15   | +8    | +10   | +20   | +5    | -15   |
| 부산/울산/경남 | -11   | -9    | +4    | +23   | +30   | +33   | +14   | -19   |

지난달 대비 보수층에서 하락폭 가장 커

(N=1,000, 포인트)

|    |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전월 대비 |
|----|-------|-------|-------|-------|-------|-------|-------|-------|
| 전체 | -14   | -4    | +16   | +29   | +30   | +36   | +28   | -8    |
| 진보 | +16   | +28   | +51   | +63   | +63   | +71   | +70   | -1    |
| 중도 | -10   | -6    | +11   | +22   | +32   | +29   | +27   | -2    |
| 보수 | -52   | -36   | -20   | -7    | -11   | -1    | -20   | -19   |

담당자 오승호 차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여론속의

# 여輿論論

CHAPTER



03

조사개요

## 조사개요

| 구 분      | 내 용                                                                                       |
|----------|-------------------------------------------------------------------------------------------|
| 모집단      |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
| 표집틀      | • 한국리서치 MS 패널(2018년 6월 기준 42만명)                                                           |
| 표집방법     |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
| 표본크기     | • 1,000명                                                                                  |
| 표본오차     |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
| 조사방법     |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1:1 발송)                                                            |
| 가중치 부여방식 |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립가중)<br>(2018년 1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 응답율      | • 메일 발송 8,429명, 조사참여 1,273명, 조사완료 1,000명<br>(발송자 대비 11.9%, 참여자 대비 78.6%, 유효 참여자 대비 84.8%) |
| 조사일시     | • 2018년 7월 18일~20일                                                                        |
| 조사기관     |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